

히토테이

히토테이(飛濤亭)는 혼보오모테몬(本坊表門) 안쪽에 있는 두 다실 가운데 하나로서 또 하나의 다실인 료카쿠테이와 더불어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닌나지 절의 28 대 주지가 제 119 대 천황인 고카쿠 천황(1780~1817 년)의 이복형이었던 인연으로 고카쿠 천황이 닌나지 절에 기증했습니다. 료카쿠테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실과 달리 히토테이의 출입구 높이는 굽히지 않아도 드나들 수 있는 크기여서 ‘귀인의 출입구’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몸을 굽혀야만 출입구를 드나들 수 있는 다실의 경우,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버려야만 하며, 이에 따라 다회에 더 평등하고 열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. 한편 히토테이의 출입구는 선 자세로 들어올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바깥 세계의 사회적인 관계성이 다실 안까지 따라오게 됩니다. 이는 아마도 천황이 기증한 다실 나름의 특징일 것입니다. 이 건물은 보통 일반에 공개하지 않지만, 사전 예약을 통해 단체 견학이 가능하며 ‘이끼의 바다’라고도 불리는 정원을 산책하고 바깥쪽에서 다실 건물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. 히토테이에 딸린 정원이 있는데, 아름다운 북쪽 정원인 호쿠테이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드넓으면서 한가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.